

# 1994년도 정기총회

## '9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理事·監事 선임, 定款 일부 변경

한국에너지협회의 1994년도 정기총회가 지난 2월 17일 회원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전 본사 7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정기총회는 이사 및 감사 선임과 정관 일부 변경(안)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94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확정하였다.

'94년도 주요 사업계획은 WEC 국내위원회 역점사업으로서 남아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되는 WEC 집행이사회 참가와 WEC상임 및 기술분과위원회 참여활동, '95년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는 제16차 WEC 총회 참가준비등을 보다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회원협력사업으로 에너지계 경영인 신년인사회, 에너지세미나, 에너지경영인 조찬간담회, 회원사 산업시찰 등 회원상호 유대강화를 도모하고 한국에너지협회보 발간,



7층 회의실에서 열렸던 <1994년도 정기총회>가 한전 본사

WEC관련 자료입수 및 배포등 기술정보 제공에도 신속한 전달체계를 갖추기로 하였다.

한편, '94년도 예산은 2억 7천 만원으로 확정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협의회의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고 에너지계의 협력증진을 강화하기 위해 정관 일부를 변경, 이사의 정원을 현재 18명에서 23명으로 증원하였으며, 아울러 이사 3명을 추가 선임 하였다.

이에따라 한국석유개발공사 장석정 사장, 한국전기안전공사 홍세기 이사장, 효성중공업 유종렬 사장이 각각 이사로 선임되었다.

한편 협의회 정관에 의거, 현재 임원직을 맡고 있는 기관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후임자가 자동 승계하게 됨에따라 임원진이 대폭 교체되었다.

대한석탄공사 서생현 사장, (주) 유공 조규향 사장이 부회장으로 자동 승계되고, 에너지관리공단 이기성 이사장, 포항종합제철(주) 홍상복 부사장, 호남정유 허동수 사장, 한국과학기술원 심상철 원장이 각각 이사직을 맡게 되었다.

협의회의 감사에는 한전기공(주)의 서석천 사장, 호유에너지(주)의 권오륜 사장이 선임되었다.

# 제23차 이사회

## '93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 심의

한국에너지협회 제23차 이사회가 협의회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종훈 회장의 주재로 지난 2월17일 한전 본사 7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이사회는 임원현황 보고에 이어 '93년도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임원 현황은 현재 협의회 임원 20명 중 부회장과 이사 및 감사 각

1명이 교체되었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협의회의 '93년도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안)은 사무국장의 자세한 내용설명이 있은후 참석한 이사들의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다.

한국에너지협의회는 4월 26일  
인터·컨티넨탈호텔 2층  
오키드룸에서 국내에너지분야의  
경영인 및 학계, 연구소의 전문가  
약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에너지회의(World Energy  
Council)사무총장인 Mr.I.D.

Lindsay를 특별초청하여 에너지  
경영인 조찬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특별연사로 초청된 I.D.  
Lindsay 사무총장은 최근 WEC가  
미래의 지역적, 세계적 에너지  
현황과 각국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3년간의 연구조사 기간과  
세계 각국의 에너지 분야전문가 약  
350명이 참가하여 연구발표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미래 세계의  
에너지(Energyfor Tomorrow's Wor-  
ld)에 관한 강연을 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전세계적으로  
지구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 WEC 사무총장 초청 에너지 경영인 간담회

증대되고 있고, 에너지수급에도  
새로운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의 대응방안과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에너지계

경영인과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에너지산업도 구조개편과  
에너지효율증진 및 신기술 개발을  
위한 産·學·研 공동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WEC 사무총장인 Mr.I.D.Lindsay를 특별초청, 에너지경영인 간담회를 가졌다.〉

## 「Energy for Tomorrow's World」 WEC 에너지 세미나

한국에너지협의회는  
에너지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난  
4월 11일 오후 3시 한전 본사 별관  
5층 강당에서 회원사 임·직원 및  
국내 에너지분야 인사 약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Energy for  
Tomorrow's World」를 주제로  
WEC에너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에너지 세미나는 1993년  
9월에 발표된 WEC 「Energy for  
Tomorrow's World」 위원회 보고서  
내용을 요약 발표하고,이에 따른  
국내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우리나라

에너지·환경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에너지경제연구원 李會晟원장의  
개회사와 한국에너지협의회  
李宗勳회장 (한국전력공사 사장)의  
환영사에 이어 에너지경제연구원  
정태용 박사의 주제발표 및  
토론자의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토론은 서울대 송병락 교수의  
사회로 상공자원부 유창무 과장,  
서울대 김호탁 교수, 유공가스  
서효중 고문, 한국전력공사 전재풍

처장이 토론자로 참가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은 미래  
세계의 에너지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국제적인  
변화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대응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세미나가 끝난후 가진 리셉션  
행사에서는李宗勳회장과 李會晟  
원장이 참가자들을 영접하였으며,  
아울러 회장 인사말씀과 에너지계의  
발전을 자축하는 건배제창이  
있었다.

이날 리셉션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약30분동안  
진행되었는데 참가자들은  
에너지분야의 공동관심사에 관한  
상호 의견교환과 환담을 나누었다.